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관심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바라볼수있는마음 **희망찬 마음=** :마음심 審 살펴갈 내일! 음살필심 2019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Vol. 515

2019.04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관심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한 동 력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 월 간 〈교정〉에서 '관심'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홈페이 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 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2019년 4월호 (통권 515호) 63권 4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관심하다는 말의 속뜻

80

역사를 품다

백성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보는 '관심(호기심)'

희망찬 마음 =



뜻깊은 오늘 +

교정은 행복을 싣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스한 마음, 스며드는 행복 (창원교도소 황금돝섬 봉사단)

16

영화 같은 하루

부러움에서 시작한 설렘과 특별한 추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유제영 가족)

20

일상 상담소

아빠가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22

마음 나침반

당신의 관심(호기심)은?

24

시간을 달리는 교정

철수, 다시 과거로…

26

여행 따라 잉글리쉬

아일랜드의 심장 더블린 관광지6 +쇼핑 시 필요한 영어 표현

30

신조어백과

있어빌리티&탕진잼

32

글로벌 핫클릭

러시아,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축제 외



34

여민 교정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교정기관을 진단하다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살펴갈 내일!

교정 희망의 백일장 ㅣ

신발이 편하면 발을 잊는다

교정 희망의 백일장 ॥

참회, 용서 그리고 후회에서 피어난 한줄기 희망, 가족!

교정을 말하다

교정행정조직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50

국민이 전하다

영화 속 세 가지 메시지와 교도에 대한 '인식변화'(국민참여 조직진단을 마치고…) 외

54

HEADLINE

더 나은 교정을 위한 교정시설 건축을 이야기하다 (교정시설 설계표준 마련을 위 한 정책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모범공무원 소개

64

낱말퀴즈

65

공연소개

66

독자의 소리



"フトスとやにけるとのはなった。

- 스티븐스필버그(미국 영화감독) -

'E.T', '죠스', '쥬라기공원', '라이언일병 구하기', '맨인블랙' 등 수많은 영화를 기획, 제작, 감독한 미국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스필버그는 주변 사물에 대한, 그리고 현상에 대한 관심과호기심, 상상력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해 왔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마음속 어린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의 왕성한 호기심과 순수한 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바쁘다거나 자신과 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피곤하다거나 하는 등의 많은 이유들로 주변 사람과 사물,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 걸까. 스티븐스필버그나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은 아니지만 나와 연결돼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심' 그것은 내 주변을 위함과 동시에 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시아는 말의소뜻

평소에 즐겨 듣는 클래식 음반 가운데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음반이 있다. 백건우는 열살에 데뷔해서 이제는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여덟 살 무렵에 처음으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은 이후부터 일흔을 훌쩍 넘긴 지금의 나이에 이르도록 쇼팽의 음악을 연구해 왔다. 쇼팽의 과거 족적이 남아 있는 곳은 다 찾아가 봤다고 한다. 심지어 쇼팽이 피아노를 연습하던 방까지. 백건우는 '건반 위의 구도자'라고 불리지만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피아노 연습과 악보 연구에 여섯 시간을 매달린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하다. 대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연습을 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음악 속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다 보니 거기에 이끌려서 지금껏 온 것 같다"고도 했다.

백건우의 삶을 보면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동력이 관심이요, 또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도록 이끄는 것도 관심이다. 한 가지의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장인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그 일에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실력과 숙련도를 더 예리하게 만들고 높인다. 그리고 삶을 비교적 단순하게 살려고 애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일 외의 생활을 단순하게 하며산다. 크고 좁은 얼굴상을 창조한 서양의 자코메티도 그러했고, 새와 나무, 가족을 주로 그렸던 우리나라의 화가 장욱진의 삶도 그러했다.

시를 쓰는 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시를 써온 지 삼십 년이 넘었지만 시를 쓰는 일은 매번 어렵다. 언어는 아주 예민하다.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시인도 극도로 예민해야 한다. 언어는 금방 도마뱀처럼 달아나고, 언어는 깎아 놓은 사과처럼 색감이 변한다. 그래서 시인은 늘 마음이 조금은 고양된 상태에 있도록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다른 생활을 단순하게 해서 오직 시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냥불처럼 잠깐 점화된 생각을 수첩에 얼른 적어서 보관해야 하고, 구상하고 있는 시를 마치 바지 주머니에 넣어다니 듯이 늘 생각하며 마음에 지녀야 한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에 시는 줄행랑을 쳐 도망가고 마는 까닭이다.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나,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경우에도 그 일에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 간다. 대장공은 쇠붙이를 달구고 두드리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야 최고로 좋은 연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농부는 심어놓은 작물의 조건을 맞추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더 많은 수확을 그 해에 거둘 수 있다. 농부의 경우에는 좋은 씨앗을 골라야 하고, 적기에 심어야 하며, 물과 태양과 바람 과 기온이 작물에게 적절하도록 돌보아야 하며, 작물이 자라나는 데에 훼방이 되는 요인들을 없 애야 한다. 또 거두어들이는 시간도 잘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씨앗을 준비하는 때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시도 관심을 놓는 일이 없다. 해가 뜨기 전에 작물에게 가서 보살피고, 해가 다 진 이후에 작물로부터 떠나오지만 밤의 시간에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법이 없다.

부처가 녹야원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의왕(醫王)'에 대해 한 말씀이 있다. 의왕은 의사의 왕이라는 뜻이다. 즉 최고로 뛰어난 의술을 자랑하는 의사라는 뜻이다. 훌륭한 최고의 의사는 네 가지의 일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부처는 말한다. 첫째는, 이런저런 갖가지 병을 잘 아는 사람이요, 둘째는 병의 근원을 잘 아는 사람이니 그 병이 "바람으로 인해 생겼는지, 벽음(癖陰, 양쪽가슴 아래에 모인 물기가 흔들리며 출렁출렁 소리가 나는 병)에서 생겼는지, 침에서 생겼는지, 냉 (冷)에서 생겼는지, 현재 일로 인해 생겼는지, 절후(節侯) 즉 기후에서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이요, 셋째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요, 넷째는 병을 고친 후에 미래에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비유를 생각해보건대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 가져야 할 관심은 그 내용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일에 있어서 왕(王)의 지위에 점차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피아노를 연습하면 할수록 더 깊은 세계를 만나게 된다고 한 것도 이런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를 수 없고, 아무것도 지닐 수 없다. 관심은 연료이며, 엔진이다. 그러나 관심하다는 말은 차고 뜨거운 마음의 온도를 동시에 포함한다. 관심이 모든 것을 기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대해서는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조련사가 말을 훈련시킬 적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당근과 같은 것을 주어서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첫째요, 채찍을 사용해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두 번째요, 부드러움과 엄격함을 골고루 사용해서 다루는 것이 세 번째이다. 물론 조련사는 말에 대한 마음 씀을 내려놓지는 않는다. 염려와 배려와 정성을 내려놓지는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관심사를 잘 보호하고, 엄하게 다루고, 풍성하게 기를 일이다.

문태준(文泰俊)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9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맨발』、『가재미』、『그늘의 발달』、『먼 곳』、『우리들의 마지막 얼굴』、『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애지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백성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한 임금, 세종

세종대왕은 사실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그의 첫째 형인 양녕대군이었고, 충녕 대군(훗날 세종)은 셋째였다. 뿐만 아니라 양녕대군에게는 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녕이 왕에 오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일련의 행동과 사건들로 인해 태종의 마음이 동요되었다.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태종은 이미 셋째아들인 충녕대군에게 마음이 쏠려 있었다. 1418년 6월, 태종은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라고 하며 택현(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의 명분을 주어 세자로 책봉하기로 결정하였다.

1418년 8월,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한 세종은 재위 기간 32년 동안 한글 창제를 비롯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대의 발전은 비단 정치적·학문적 영역뿐 아니라 문화·예술, 과학, 농업, 의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모든 분야에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쌓고 있었던 세종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세종은 조선시대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종이 위대한 성군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을 통해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백성을 사랑한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애민정신으로 이어진 백성에 대한 관심

세종대왕의 업적 중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두드러진 대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관청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들이 출산을할 때 산후 휴가가 1주일이었는데, 세종대왕은 출산이 예정된 달을 포함해 출산 후 100일을 쉴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시켜 주는 조치를 취했으며, 또 "산모만 쉬게 하면 누가 산모를 돌보겠느냐"며 그 관비의 남편에게도 산후 1개월간 쉬게 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노

비의 인권 향상에도 힘썼는데 1427년 8월 24일, 집현전의 응교였던 권채가 여종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병든 할머니를 문병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두고 구더기가 섞인 똥과 오줌을 강제로 먹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권채와 그 아내 정 씨는 형조판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며 권채 부부를 형벌로 심문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후 1444년에는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다 같이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노비가 죄를 지었는지 유무와는 별개로 관에 알리지 않고 구타 및 살인을 한 자는 옛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라"라는 지시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죄인들도 백성으로 품고 그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어린이와 노인이 죄를 범했을 때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표시하는 '자자'형(얼굴이나 몸에 죄목을 새기는 형벌)을 금지했다. 또한 더위가 심한 날에는 유배형이하의 죄수를 모두 사면토록 지시했으며, 석방되지 않은 죄수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돌봐주라며 죄수의 인권을 챙겨주기도 했다. 또한 4월부터 8월까지는 냉수를, 5월부터 7월 10일까지는 목욕 시간을 따로 배정하라고 지시했으며,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옥 안에 짚을 두텁게 쌓아 추위를 막아주도록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죄수들의 자식 중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아이는 국가 가 나서서 이들을 부양해줄 사람을 지정해주기도 했다. 또현재의 귀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토록 지시했으며 귀휴 일수를 복역 기간에 포함시키는 교지를 하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양인, 천민, 노비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자신이 보살펴야 할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임금이었다. 이렇듯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임금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세종이었기에 지금도 청송받는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닐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인 세종대왕. 그가 보여준 '애민정신'과 백성에 대한 관심이 지금 바로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정〉 독자에게 들어보는 '관심(호기심)'

4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관심(호기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 어떤 일에 또는 누구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 호 주제인 '관심(호기심)'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월간 〈교정〉 3월호 '역사를 품다'에서 안중근 선생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글을 보며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새삼 조마리아 여사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독자 황복희 대전시 대덕구〉

올해 여섯 살이 된 호기심 많은 막내아들은 항상 출근할 때 물어봅니다. 아빠! 구치소 가서 뭐해?"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주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소에 가족참관행사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열려서 교정장비 시연도 해보고 아빠의 직장을 소개해줄 수 있어서 우리 가족들과 특히 막내아들의 호기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구치소 교위 김도한〉

언뜻 가볍게 지나치는 모든 일들이 그 누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관심이 될 수도 있죠. 조금만 관심을 준다면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듯도 합니다.

〈군산교도소 교감 김태원〉

저는 요즘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농장도 가꾸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교육에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퇴직 후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네요.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김현철 〉

업무에 대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바로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유제영〉

평소 월간 〈교정〉을 애독하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저는 항상 월간 〈교정〉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그냥 무관심하게 책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각 코너의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간 〈교정〉에 더욱 애정이 생기는 것 〈대구교도소 교위 이종우〉

* 〈교정〉지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 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담다'의 참여는 마지막 페이지 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창원교도소 '황금돝섬 봉사단'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스한 마음, 스며드는 행복

창원교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야트막한 산기슭에 자리한 복지시설 '소망원'으로 한 무리의 차량이 들어선다. 숲길로 이어진 길가에는 벚꽃나무가 꽃 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춘삼월, 봄이선사하는 희망의 기운이 가득 퍼진다.

소망원 입구에 도착한 '황금돝섬 봉사단' 회원들이 차에서 줄줄이 내린다. 저마다 차에 싣고 온집을 꺼내는 손길이 바쁘다. 차에서 내린 짐을 한곳에 모으니, 20kg 쌀 4포를 비롯해 샴푸, 칫솔, 휴지,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면, 빵, 쿠키, 음료등 각종 부식까지 한 가득이다. 가져온 물품을 소망원 안의 식당으로 옮긴 후 직원들이 빗자루를 챙겨들고 1층과 2층 곳곳으로 흩어진다. 건물 입구와식당, 복도 등 곳곳을 빗자루로 쓸고 대걸레로 꼼꼼히 닦는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석구석 청소하고 나니, 실내가 한결 깨끗해졌다. 허철용 교위가빗자루를 손에 쥔 채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봉사하러 오면 보통은 도움을 준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도 소망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병으로 인해 형 집행정지가 된 수형자가 갈 곳

이 없어 무연고자가 되면 다른 시설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 소망원은 무연고자들의 '마지막 안식처'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도소 입장에서도 매우 감사한 곳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뜻을 모아 봉사활동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들의 안식처 '소망원'에서 10년째 봉사활동

창원 관내에 위치한 '소망원'은 장애인과 갈 곳 없는 무연고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목사이기도 한 원장님의 보살핌 아래, 세상에서 버림받고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 창원교도소와 소망원은 30년째 인연을 맺고 있으며 직원들 및 수형자들도 10년째 소망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금돝섬'은 창원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이날 1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매달 소망원을 방문해청소를 도맡아 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고 간식을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또한 소망원 식구들이 먹을 간식거리와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 에는 특별히 최병록 소장이 함께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소장은 "우리 직원들이 맡은 업무도 성실히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꾸준히 봉사를 해오고 있어 매우 뿌듯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르신들 발을 씻기며 뭉클한 감동을 전하다

청소를 말끔하게 마친 후, 직원들은 작은 대아에 따뜻한 물 을 담아 기다란 의자 앞에 나란히 놓았다.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 드리기 위함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연로한 어르 신들은 자기 몸 하나 씻는 것도 쉽지 않다. 어르신들이 의자 에 앉아 대아에 발을 담그자 직원들이 한 명씩 앞에 쭈그리 고 앉아 발을 정성껏 씻어 나간다. 세월의 긴 흔적과 함께 방치되어, 딱딱하고 거칠어진 발이다. 그 발을 씻긴 후 수건 으로 닦는다. 흡사 '세족식'처럼 발을 씻기는 동안 침묵만이 감돈다.

"발 씻으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네"

어르신은 수줍어하면서도 환한 미소로 답했다. 비록 말이 어 눌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밝은 표정에서 발을 씻어준 이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진다. 작은 감동이 서로의 가슴으로 전해진다. 사실 가족이라도 선뜻 발을 씻어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김도완 교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니 그 사람에게 더 친밀감이 생기고 내 스스로도 감사함을 느낀 다"고 말했다.

"전에는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주로 해드렸는데, 이번에 발

4 mL = 20PET 1215



을 씻으면서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세족식은 의미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아내의 발도 씻어주고 싶어요." 이날의 세족식이 직원 각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어, 가족에 게도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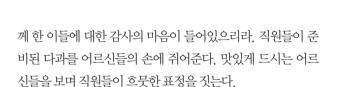
생일 맞은 가족 축하하며 다과를 나누다

어느덧 식당으로 사람들이 속속 들어온다. 커다란 식탁 위에 봉사단에서 준비해온 간식이 차려졌다. 가운데에는 먹음직스 런 생크림 케이크도 놓였다. 이날 소망원 가족 중에 생일을 맞 은 어르신이 있어 다과도 즐기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

다.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 치 며 축하해 주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생일을 축하해 주니, 주인공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함

을 붙이자 주인공의 얼굴이 환해졌



"맛있어요?"

"많이 드이소"

"과자 맛있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허철용 교위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한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 더 맛있어요."

어르신이 화답하듯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맛있게 드이소, 더욱 건강하이소, 겁나게 행복하이소" 허철용 교위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덩달아 행복한 웃음이 전염된다. 다 같이 간식을 즐기는 시간.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진다.

김병록 교위는 "봉사활동을 갈 때면 매번 생필품을 지원해주 니, 직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볍고 여러모로 든든하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소망원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 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은 크든 작든, 주변에 전염이 된다고 했던가. 하루의 짧은 봉사활동이었지만 교정 직원들의 따스한 마음이 소망원 가족 의 마음에 '행복'이라는 귀한 씨앗을 심어주었으리라. 담장 밖

의 세상,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 어, 이 봄날이 더욱 찬란한 건 아닐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맨 뒤 페 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하

신청해주세요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부러움에서 시작한 설렘과 특별한 추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유제영 가족

누구나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미루다 끝내는 지나치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 속에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자신이 좀 귀찮더라도, 시간이 좀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실천으로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바로 '영화 같은 하루'의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사실 연애할 때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연애를 한 것 같고, 근사한 프러포즈도 없었어요. 그건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번 생일 은 자랑할 만도 하고,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생일을 맞게 해준 신랑한테 고맙 고 정말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주말가족 아빠의 가족을 위한 선택

겨울이 가는 것이 아쉬운 듯 아직은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3월의 마지막 날 아침.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제영 교사 가족의 '영화 같은 하루'를 위해 서둘러 약속장소인 코엑스에 도착했다. 저 멀리 유제영교사와 아내 윤미선 씨, 딸 하음이가 서로를 마주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그 장면만으로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유제영교사 가족의 '영화 같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기 힘든 것을 월간 〈교정〉을 통해 이뤄주는 '영화 같은 하루'에 유제영 교사가 신청한 내용은 '로브스터 뷔페'와 '스위트룸 영화 관람'이다.

"두 달 전에 발간된 교정지를 보다 다른 직원분의 '영화 같은 하루'이야기를 봤어요. 호캉스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보면서 마냥 부럽고, '나도 호텔에서 푹 쉬면서 힐링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른 직원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했죠. 그리고 가족들과 저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도 한 번 신청해 볼까'하고 별기대감 없이 메일로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영화 같은 하루'에 신청한 계기를 묻자, '부러움'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사실 유제영 교사의 가족은 주말에만 모이는 소위 '주말가족'이다. 서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제영 교사와는 달리 가족은 공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매일 볼 수 없

기 때문에 집에 가는 날 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유제영 교사는 아내와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딸 하음이에게는 또래 친구들 아빠처럼 늘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내내 마음의 짐이다. 그래서 하음이와 만나는 날이면 공기놀이, 오목, 보드게임, 수영장 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덧 6학년인 된 하음이는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한다.



유제영 교사 가족이 '영화 같은 하루'를 통해 신청한 로브스터 뷔페 음식들.

2019



남편의 첫 이벤트 '영화 같은 하루'

다른 가족처럼 매일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함께 있 는 동안 최대한 많은 교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유제영 교사,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소에는 물론이고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도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해 본적 은 없다

"아내에겐 미안한 얘긴데, 이벤트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 니다. 이벤트를 하면 많이 설레고 행복할 것 같기는 한데.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영화 같은 하루'가 저에 게는 첫 번째 이벤트고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사실 아내 생 일이 4월 1일이거든요. 매번 말로만 성대한 생일파티를 얘기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생일을 보낼 수 있을 줄 몰랐 을 겁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기억을 선물하지 못한 것 같아 이번 '영화 같은 하루'가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 을 것 같다는 유 교사의 말에 아내 미선 씨가 한 마디 거든다.

"사실 연애할 때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연애를 한 것 같고. 근사한 프러포즈도 없었어요. 그건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 였죠. 하지만 이번 생일은 자랑할 만도 하고, 두고두고 기억 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생일을 맞게 해준 신랑한테 고맙고 정말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긴장된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겠다는 아내 미선 씨의 말에 유제영 교사 역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몽골 선교여행에서 같은 팀에 소속되어 서로 호감을 갖게 된 뒤, 국내로 돌아와 연인이 됐다는 유제영, 윤미선 부부, 아내 미선 씨가 얘기했듯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부는 누 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훌쩍 자란 딸 하음이

부부와 이야기를 끝낼 무렵 얌전히 앉아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하음이에게 눈길이 갔다. 처음 봤을 때 낮이 설어 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랬는지 서먹 해 하고 부끄러워하던 모습에서 조금은 편해진 모습이다. 그 런 하음이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 렇게 자연스럽게 하음이에 관해 이야기의 화제가 돌아갔다. 올해로 초등학교에서 최고 학년인 6학년이 된 하음이는 이 제 막 사춘기를 시작할 시기다.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 면 부모님과 생각의 차이 등으로 많이 다투고, 서로 간의 거 리감이 생기지만 하음이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모님의 소 중함을 알고 그만큼 더 생각하는 든든한 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미선 씨의 말이다.

"6학년 새학기가 돼서 임원선출을 하는데. 친구들이 하음이 를 회장으로 추천했데요. 그런데 하음이가 회장은 거절하고 부회장으로 추천해주면 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이유를 들 어보니까 회장이 되면 바쁜 아빠. 엄마가 학교에 가야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어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데 뿌듯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 오더라고요."

미선 씨가 말하는 내내 하음이를 바라보고 있던 유제영 교사 가 만감이 교차하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는다. 반을 대 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바쁜 부모 님 걱정을 먼저 할 만큼 훌쩍 커버린 하음이는 어느덧 '이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영화 같은 하루'

이번 '영화 같은 하루'의 신청 장소는 모두 아내와 딸이 선택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은 아니다. 처음 신청을 했다고 말했을 때도 당첨돼서 진행하게 됐다고 했을 때도 시큰둥했다. 심지어 인터뷰하는 것이며, 촬영하는 것이 부담된다며 취소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더군다나 이제 막 사 춘기를 시작한 하음이도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제영 교사의 설득 끝에 어렵게 승낙을 하고 진행 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랬던 아내와 딸이 점점 약속된 날이 다 가오면서 식당과 영화관에 대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 보고 후기 등을 보면서 유 교사 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고 귀띔했다.

"스케줄이 잡히고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던 아내가 며칠이 지나고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 생일과 날짜가 겹쳐서 본인이 받아보는 최고의 생일상이라며 들떠서 행복 해 하는 모습에 절로 흐믓해 지더라고요"

'영화 같은 하루'를 은근히 기대하는 아내와 딸의 모습에 '교 정공무원이어서 이런 행복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는 유제영 교사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제영 교사가 신청한 내용을 진행할 차 례다. 식당에 들어서니 아직 12시 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됐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온갖 로브스터 요리를 즐겼고, 그 맛 과 분위기에 취해 연애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화 관람을 위해 스위트룸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감탄 사가 절로 나온다. 마치 최고급 호텔 룸에 들어온 것 같은 느 낌이다. 딸 하음이는 처음 접해보는 뷔페와 영화관에서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 사합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음식과 새로운 문화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많은 교정공무원들이 행복한 시 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영화 같은 하루'에 당첨돼서 온 가족과 함께 한 시간들이 꿈만 같고. 정말 영화의 주인공 같 은 하루를 누린 것 같다는 유제영 교사는 아내, 딸과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월간 〈교정〉 제작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몸은 주말에만 만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는 유 제영 교사 가족, 항상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버팀 목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가족의 일상적인 모습이 진정한 '영 화 같은 삶이 아닐까. 늘 편안한 친구 같은 남편이자 아빠이 고 싶다는 유제영 교사의 바람처럼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본다

'영화 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이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viw1219@korea.kr



 \bowtie

19



TV나 영화,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은 엄마와는 달리 그 자녀들과 대부분은 서먹하거나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 심해지죠.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빠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시간들이 축적된 만큼 아이들과는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호에서는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와 지내는 시간은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하자.

집에 일찍 들어가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노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에게 집중해서 진심으로 함께 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아이와 지내는 시간은 많은데 아이와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아빠는 아이의 옆에만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아이와 공감을 하거나 소통을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놀이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와 일상적이고 단순한 놀이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해 나갑니다.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좋으면 아이의 사회성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하려는 아빠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아이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고만 있지 말고, 1분이라도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아이와 지내는 시간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한다면 아이의 손짓, 몸짓, 표정에 한 번 집중해보고 아빠가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미션을 정해서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충실히 하자.

일반적으로 아빠에게 '직장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한 정시퇴근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오늘 할 미션을 미리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다 한번 시간은 내지만 아이와의 약속이 자꾸 뒤로 밀린 다면 아빠 자신이 한 가지 미션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목욕은 아빠가 무조건 담당한다거나, 아이와 맨몸놀이 또는 간단한 풍선 놀이를 하는 것, 아빠가 아이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는 것 등입니다. 만약 평일에는 정말 어렵다면 주말 동안은 꼭 아이와 단둘이서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이나 동물원에 함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독박육아로 지친 엄마에게 주말이라도 잠깐의 휴식 시간을 주고 아빠가 아이와 단둘이서 데이트를 마음껏 즐겨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아빠와의 그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할 겁니다.



하루 10분, 온전히 아이의 속도와 기분에 맞춰보자.

하루에 10분 만이라도 아빠의 기분이 아닌 아이의 기분에 맞춰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빠들은 회사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아빠는 매일 피곤함에 찌들어 있어 육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와 하루에 10분을 보내는 시간은 사실 24시간, 1,440분 중에서 전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 10분도 어렵다면 3분, 5분, 10분, 20분으로 점점 아이와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아빠의 기분에 맞추지말고 온전하게 아이의 속도와 기분에 맞춰주세요. 일단 시도하고 나면 그 10분으로 아이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싶어질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10분의 짧은 시간은 강력한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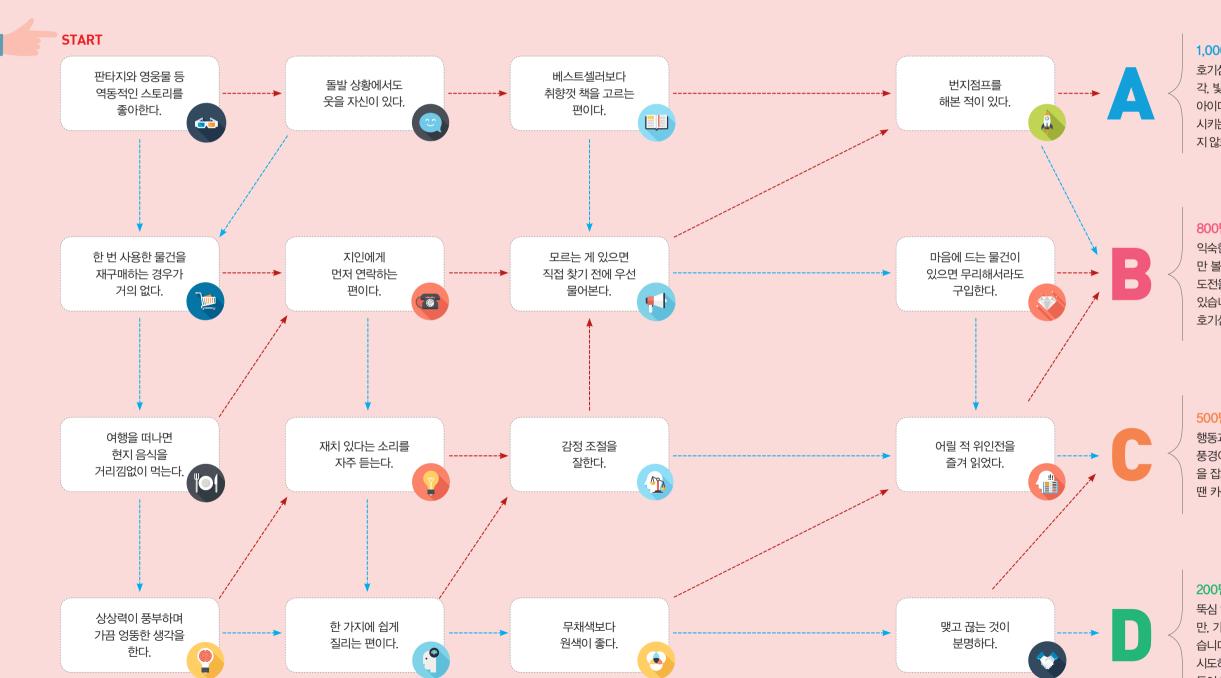


당신의 호기심(관심) 지수는?

----> YES ----> NO 알아야 할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알고 싶은 게 매우 많아 매일이 새로운가? 호기심 테스트로 잠재된 도전 에너지를 측정해보자.

참고서적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정종진, 시그마북스)





1,000만 볼트의 호기심으로 매일이 새롭다!

호기심 1,000만 볼트의 당신에게는 일상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 빛나는 아이디어로 매일을 살아가죠. 아무런 비판 없이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일반적인 생각을 자신만의 것으로 변형시키는 사고 방식은 이러한 호기심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 충만한 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800만 볼트,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눈으로

익숙한 것도 이리저리 뜯어 보며 새로운 관점을 찾아낼 줄 아는 당신, 800 만 볼트의 호기심을 장착한 창의적 인재입니다. 탐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일상화하고 있죠. 이러한 장점은 '구체화하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흘려보내지 않고 구체화하며 다듬는다면 호기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500만 볼트, 탐구심과 게으름 사이 어딘가에서

행동과 생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나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는 걸 분명 알고 있지만, 게으름은 조금만 방심해도 발목 을 잡고 이것저것 핑곗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안 따라줘 퍼지기만 할 땐 카운트다운을 하고 몸을 벌떡 일으키면 어떨까요? 5, 4, 3, 2, 1. 출발!

200만 볼트, 익숙한 게 최고다!

뚝심 있는 당신. 쉽게 질리지 않고 한 가지에 열중하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가끔은 일탈을 통해 정신을 환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때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쪽으로 향하거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메뉴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도전이지만,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창의력을 깨우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

아일랜드의 대표 맥주, 기네스 맥주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1층과 3층에서는 기네스 맥주의 역사와 양조 과정, 기네스 광고의 역사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다. 4층 기네스 아카데미에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맥주를 따르고 시음해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시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1.9유 로 더 싸게 구입가능하다. 7층 그래비티 바 (Gravity Bar)에서는 더 블린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



트리트니 칼리지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 조너선 스위프트를 배출한 아일랜드 최고 명 문대학교 트리트니 대학에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서관의 모 티브가 된 고서적 보관소 Long Room이 있다. 입장료는 14유로이지 만 애서가라면 한 번쯤 가볼만한 곳이다. 너비 12미터 길이 64미터 에 육박한 곳으로 오래된 책에서만 맡을 수 있는 진한 향기가 코끝 을 자극한다.



작가 박물관

제임스 조이스, 버나드 쇼, 윌리엄 예이츠 등 더블린 출신의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아일랜드 출신 문학가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더블린 작가 박물관은 작가의 친필로 쓴 서신, 작품 초고, 초상화 등 을 보관하고 있다. 근처에는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이 따로 조성되어 있고 옆에 있는 미술관 시티 갤러리는 입장료가 무료라 함께 들르길 추천한다.



그래프턴 거리

영화 '원스'의 메인 촬영지인 그래프턴 거리는 버스킹(busking, 길거 리 연주)의 성지이다. 분주한 가운데 곳곳에서 황홀한 연주가 울려 퍼지며 일상과 음악이 맞닿아 있는 매력적인 거리이다. 이곳의 대표 카페, Bewley's Cafe에서 아이리쉬 커피를 마시는 건 어떨까. 뮤지 션들 뿐만 아니라 미술사, 행위예술가 등 여러 장르의 공연 예술인 들을 만날 수 있다.



템플바 거리

생동감 넘치는 더블린를 만나고 싶다면 '펍문화'의 진수를 알 수 있는 '템플바 거리'를 추천한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유 명사 '아이리쉬펍'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템블바'는 빨간 외관 덕 분에 단번에 눈에 띈다. 붉은 벽돌 건물마다 장식된 꽃들과 거리 곳곳에서 출몰하는 각양각색의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는 재미는 덤이다.



조지 스트리트 아케이드

더블린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센터로 독특한 상점들이 모여 있어 기 념품을 사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천정이 덮힌 구조의 아케이드 상점가인데 영화 비긴 어게인의 촬영 지이기도 하다. 앤틱 소품과 레코드 가게 등등 상점가를 누비며 레 트로 감성을 즐길 수 있다.

▶ 영어회화 표현



쇼핑 시 유용한 영어표현

Where is the women's wear?

여성복 매장은 어디인가요?

It's on the 3rd floor.

3층입니다.

Take the elevator to the 7th floor.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층으로 가세요.

Go up the stairs and turn right.

계단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It will be on your left.

왼쪽에 있을 것입니다.

What time do you close?

몇 시에 폐점하나요?

Are you having a sale?

세일 중인가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좀 깎아 주시겠어요?

Will that be cash or charge?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Cash, please.

현금으로 항게요.

I want to buy a souvenir for my son.

아들에게 줄 기념품을 사려고 하는데요

What gift do you recommend?

추천해주실 만한 선물이 있나요?

Can I get this gift-wrapped?

포장해 주실래요?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Do you take a credit card?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I think you gave me wrong check.

거스름돈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28

04 2019



있어보이는 능력(있어빌리티) & 탕진하며 살자(탕진잼)

신조어 '있어빌리티'와 '탕진잼' 알아보기



있어빌리티



'있어 빌리티'는 '있어 보인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단어 'ability'를 합쳐 만든 신조어이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뭔가 있어 보이게 자신을 잘 포장하는 능력을 뜻한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보다는 멋져 보이려는 것만 SNS에 공유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다.

용어 해석

관련어: 인스타그램 마케팅, 핫플(=핫플레이스의 준말) 사용예시: '있어빌리티'를 강조하는 인스타그램 세태의 현실.



전문가 용어 진단 '있어빌리티'는 '인스타그램' 채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에서는 '글'과 '사진'을 얼마나 '조화'있게 올리냐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사진 위주의 인스타그램이 SNS의 성지가 되면서 이제는 얼마나 '있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일례로 어느 식당이나 맛보다는 가게 분위기와 음식의 디스플레이에 승부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이어져 '매력적인 사진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연일 끊이지 않는다. 최근 새로 연 가게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가게의 신제품이나 주최하는 행사 등을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한다. 이렇게 '있어빌리티'의 문화를 창출한 인스타그램은 이제 소비 시장의 맥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생산자뿐만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자신을 PR하는 채널로 인스타그램의 '있어빌리티'를 십분 활용하는 편이다. 자신의 SNS에 고가의 상품 로고를 부각시킨 사진이나 해외 휴양지에서의 휴가사진,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있어빌리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무언가를 타인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난 단어가 바로 '있어빌리티'인 것이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시대를 표현하길 원하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탕진잼



포털사이트 사전에도 등록된 신조어로 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탕진'과 재미의 준말, '잼'이 합쳐진 단어이다. 주로 저가의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구입, 디저트 카페에서 작은 사치 누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돈을 낭비하듯 쓰며 소비의 재미를 추구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용어 해석

유의어: 텅장(=텅텅 비어버린 통장) 사용예시: 탕진잼 누리느라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림.



전문가 용어 진단 '탕진잼'은 소비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는 감정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이다. 아껴 야 잘 산다는 기성시대의 신조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하루 마실 커피를 참아서 적 금을 들고 주택 청약에 돈을 붓는 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인디 밴드 가수 '요조'는 '오늘 마실 아메리카노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했다. 이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오늘의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말이다. 사람들은 이제 '인생은 한 번뿐!'을 외치며 자신의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거나 월급 통장을 털어 해외여행을 훌쩍 떠나기도 한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3.8%가 '감정소비를 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2030 직장인들은 순전히 기분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한 달 평균 14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정 소비'의 비중이 날로 커진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심리적 결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탕진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 때문이다.



러시아,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축제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를 맞아 3월 5일.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 슬레니차'를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야로 슬라블 지역 6개 교도소에서 제8연방교도소로 이 송된 수용자들은 축제의 대표적 음식인 블린(러시 아식 패케이크) 먹기, 마슬레니차 인형 불태우기와 함께 이인삼각경기, 장애물 달리기 등을 통해, 소 내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수용자에게는 가석 방 심사 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 한편 마슬레니차 축제는 매년 러시아에서 사수 절 직전 일주일 동안 열리는 봄맞이 축제를 의미한 다. 축제가 끝나면 시순절 기간 동안 고기, 생선, 유 제품 등을 먹을 수 없기에 러시아인들은 이 축제 기 간 동안 블린을 마음껏 먹는 것으로 사순절 금식을 준비하고 하다.



영국, 트랜스젠더 분리 수감… 교도소 내 여성 성폭행 때문

영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 트랜스젠더 전용 구역이 생긴다. 영국 BBC는 3월 3일(현지 시간) 런던 남부 의 여성 교도소 '더 윙'(The wing)에 트랜스젠더 구 역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법무부는 트 랜스젠더 수용자인 카렌 화이트가 웨이크필드 뉴 홀의 여성 교도소에서 두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한 조치로 카렌 화이트를 포함한 3 명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트랜스젠더 구역에 이 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레 화이트(이하 화이트) 는 2001년 2건의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03년 여성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8년 8월 노인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여 리즈에 위치한 남성 교도소에 입소한 후 "성 정체성 혼락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의 이 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감 이후 화이트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자 이에 대한 조치로 '트래 스젠더' 구역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 이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수용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옌청교도소에 AI 감시 시스템 도입

중국의 옌청교도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자의 모든 방은 물론 교도소 내 곳곳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교 정 당국은 옌청교도소에 AI 감시 시스템이 도입됨 에 따라 탈옥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불법적이고 비 정상적인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수용자들의 비정상적인 행 동 유형을 포착해 교도관들에게 알리도록 설계되 어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정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한 직원은 "첨단 기술 때문에 각 카메라가 2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면서 AI가 모든 수용자의 사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고령자 범죄율 급등···· 기초 노령 연금만으로 생활 유지 못해

일본에서 고령자의 범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65세 이상 고령자 의 범죄 비율은 5%에 불과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20%를 넘어섰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고령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감옥 에 수용되면 의료비, 생활비 등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어 출소를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 옥에 재수용되길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도 쿄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호주의 인구 통계 학 자 뉴먼 씨는 최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 본의 고령자는 부동산 임대료나 식품, 의료비 등 으로도 적자"라며, "기초 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본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도 둑질'로 통상 3.000엔(약 3만500원) 미만의 음식 을 훔치고 감옥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계 최장인 '84.1년'이라는 기대수명을 가진 일본 에서 '고령자 범죄'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교정기관을 진단하다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법무부는 국민이 교정기관을 직접 진단한 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범방지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100여 명의 국민참여단은 3월 12일 안양교도소 사전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2번의 현장진단과 집중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교정기관의 고충에 공감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0여 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뜨거운 현장을 지금 공개한다.



Step1. 국민참여단 사전워크숍 국민 여러분을 국민참여단으로 위촉합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플랫폼'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총 324명이 지원했으며 그중 성별, 연령, 지역,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 명의 참여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은 3월 12일 사전워크숍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안양교도소에 모인 국민참여단은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신용해 안양교도소장, 최찬희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의 취지와 추진 방향, 앞으로의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의 지원동기 소개가 이어졌다. 국민참여단은 연령, 직업 등이 다양한 만큼이나 동기도 저마다 달랐다

남병수 씨는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완전 격리가 될 수 있는지 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수용자들의 인권과 피해자들의 아픔, 그 양날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라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국민참여단의 당찬 지원동기 소개가 끝난 후 유승만 단장이 국민참여단의 연령대 대표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그 후, 진행을 맡은 이음파트너스 이연지 이사가 조직진단의 필요성과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재범방지정책 내실화를 위한 전문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이 이번 조직진단의 목표입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분류센 터와 분류심사과, 심리치료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 의 삶과 직결되는 재범방지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조직 및 인력, 업무처리 절차 등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신용해 안양교도소장이 교정시설의 조직 안내부터 교정 기관 분포도, 교정공무원의 역할, 수용 관리, 수용 환경, 고위 험군 관리를 위한 분류센터, 교정교화 등에 관해 강의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견학이 이루어졌다. 2개 조로 나뉘어 신용해 소장과 최진규 부소장의 인솔하에 수용시설부터 직업훈련장, 취사장, 심리치료센터 등을 견학했다. 견학을 마친 국민참여단은 조직진단에 대한 마음가짐을 메모지에 작성해 갤러리 워크(Gallery Walk)에 붙였다. 갤러리 워크에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수용자들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국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이 기회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좋은 교정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 다부진 각오들이 나열되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Step2.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분류심사와 심리치료 업무를 다 같이 고민해보다

3월 14일 서울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3월 19일 대전교 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분류심사 및 심리치료 진단이 이 루어졌다. 현장진단은 진단 대상 업무를 설명한 후 국민참여 단이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진단과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관 련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발표하 는 순으로 진행됐다.

분류심사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우치동 법무부 교정본부 교 감이 분류심사 업무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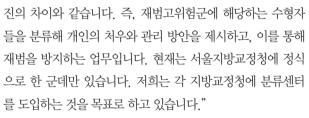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와서 심사를 받는 과정을 분류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입분류심사는 물론 가석방과 재심사, 운영 지원작업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복귀지원센터 및 중간 처우 대 상자 선정, 분류처우위원회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심사과는 52개 교정기관에 25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7곳은 보안과 소속으로 분류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분류심사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 교감 다음으로 최찬희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분류 센터에 관해 이야기했다.

"분류심사와 분류센터의 차이는 일반 건강검진과 정밀 건강검







우 교감과 최 센터장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참여단에 게 다시 한번 분류심사과와 분류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국민참여단은 서울남부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 2개 조로 나뉘어 각각의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특히 국민참여단은 분류심사과 교정공무원들로부터 분류심사 업무 현황과 애로 사항에 대해 듣는 동안 "분류심사가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분류심사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류심사를 하는데 1인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담당자의 근무시간이 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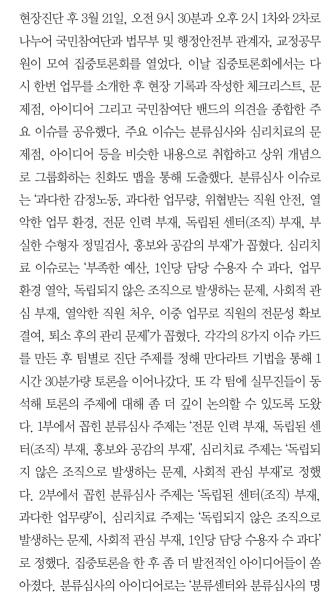
심리치료 업무 설명에는 박수연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장이 담당했다. "상습적인 알코올 범죄자, 동기 없는 범죄자, 마약사범, 정신질환 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유형은 단 순한 처벌로 추가 범죄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탄

합니다" 등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생한 곳이 바로 심리치료과입니다. 심리치료과에서는 현재 성 폭력, 정신질환, 마약 등 11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약 4.90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했습 니다 " 또 박 과장은 "앞으로 심리치료 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 망입니다. 성폭력범 이수명령은 최근 3년 동안 약 600명이 증 가하는 등 업무 증가에 따른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 서 독립된 심리치료과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정 패러다 임이 구금에서 교육으로 그리고 치료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 다"라고 강조했다. 안양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심리치 료 현장진단이 이루어졌는데, 국민참여단은 실무진으로부터 심리치료 업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담실과 프로그램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대다수 국민참여단은 상담실에서의 교정공무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이력이 부 족해 심도 있는 상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분들의 고충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분류심사와 심리치료 조직진단 이후 국민참여단은 체크 리스트 작성과 문제점. 아이디어를 구분 지어 메모지에 기록 하고 보드에 붙이는 것으로 현장진단을 마쳤다.











청 구분'과 '국민의 공감을 끌어낼 통계 자료 필요', '전문가 채용 시 선발 기준 완화', '분류심사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 데이터 공유', '사이버 교육 이수로 전문 인력 확보' 등이었다. 심리치료 부분에서는 '화상 심리치료를 개설해 부족한 전문 인력해소'와 '공익광고나 SNS 홍보에 대학생 서포터즈 활용', '기존직원을 교육해 전문 인력으로 충원,'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필요', '행정안전부의 예산 집행', '의사나 간호사의 병원 실습처럼 심리과 학생들의 교도관 실습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이 의견들을 취합 후 결과보고회 때국민참여단 제안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이날 집중토론회에 참가해 토론을 경청한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오늘 여러분이 진단해주신 부분들이 피와 살이 될것 같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재범 방지에 효과를 거둘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Step 4. 결과보고회 재범방지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국민참여단의 40여 일간의 이정표에 마침표를 찍을 결과보고 회가 4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렸다. 결과보고회에는



국민참여단과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신경우 서울동부 구치소장, 박수연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최찬희 서울지방교정 청 분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결과보고회에 앞서 유승만 정책단장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받아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선량한 국민이 보호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유 단장은 박상기 법무장관 대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38명의 국민참여단 연령별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후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경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신경우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임채화 부소장 인솔하에 서울동부구치소 견학을 시작했다. 동부구치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 통제실부터 수용시설까지 견학하는 동안 국민참여단은 끊임 없는 질문과 의견들을 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 히 중앙통제실에서의 스마트한 수용관리와 쾌적한 수용시설을 보면서 국민참여단은 "앞으로 교정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라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견학을 마친 후 본격적인 결과보고회가 시작됐다. 먼저 현장진단과 집중토론 때 국민참여단이 작성한 체크리스트결과를 발표했다.

분류심사 체크리스트 결과는 '재범방지를 위해 분류심사업무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현장진단과 집중토론 때 모두 90%대가 넘어 분류심사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류심사의 업무 난이도 수준과 분류심사 업무체계가 효율적이냐'는 답변이 현장진단 때보다 집중토론 때가더 높게 나와 국민참여단들이 분류심사 업무에 대한 고충을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심리치료 체크리스트 결과는 '재범방지에 심리치료 업무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모두 90%가 넘는 것으로 나왔으며,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해서는 현장진단때보다 집중토론 때 30%가 더 높게 나왔다. 결과보고회의 하



이라이트인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반영을 검토한 결과발표가 이어졌다. 반영은 '향후 반영이 가능한 사항', '확 대시행이 가능한 사항',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세 가지로 나 눴다. 분류심사는 총 6개의 반영이 가능한 국민제안이 나왔는데, '분류심사과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과 '분류센터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우수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인력 선발기준 완화', '분류센터와 분류심사과 명칭 구분',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다큐멘터리, 공모전 등을 통한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다.이 외에 5개의 확대시행이 가능한 사항과 1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결과로 나왔다.

심리치료는 총 4개의 반영이 가능한 국민제안이 나왔는데, '심 리치료과 독립 및 신설, 인력 충원'과 '업무 범위 조정', '심리치 료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사례집, 관련학과 대학생 등 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업무 체험 등 국민과 사회적 관심을 위 한 홍보' 등이다. 또한 4개의 확대시행이 가능한 사항과 1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결과로 나왔다.

끝으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참석한 국민참여단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참여단의 최연소 봉주현 씨는 "국민참여단을 통해 많은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 교정기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조직진단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시야도 넓어지게 돼서 뜻깊은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국민참여단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 국민참여단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 등이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민참여단의 소감에 이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첫 조직진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에 실시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계기로 재범방지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의 교정교화 업무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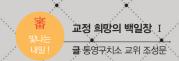












신발이 편하면 발을 잊는다



얼마 전 상반기 정기 인사이동으로 수용동 담당근무에서 기동순찰팀으로 근무명을 받았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근무배치가 바뀌고 일정 기간 동안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팀원들의 배려로 하루하루 잘 배워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기동순찰이라는 업무 특성상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기에 항상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 언제 상황이 발생되어 뛰어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유독 발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기독회를 신고 있는데다. 잔업까지 하는 날이면 발이 퉁퉁 붓기 일쑤였고, 그렇다 보니 걸음걸이도 불편했다. 또한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그동안 편한 단회만 신다가 길들여지지 않은 기동화를 신었으니 발목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고 불편한 것은 당연해 보였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소 나를 받쳐주고, 걷는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발인데, 너무 냉대하고 지낸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고생을 몰라주는 주인을 만나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기도 하면서 편한 신발 덕분에 고마움을 잊고 지낸 시간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불어 익숙함과 편안함에 속아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보이는 것들은 무심하게 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당연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항상 마시는 공기를 보자. 사는 동안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언제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 최근처럼 미세먼지로 공기의 질이 안 좋을 때이다. 공기가 맑을 때는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처럼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내 발이 좋았을 때는 몰랐던 것처럼 말이다.

몇 주 전 일이다. 모처럼 잔업이 없는 주말이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했다. 아이들은 심심하다고 보채고, 집에만 있기에는 따분하기도 해서 미세먼지를 피해 복합쇼핑몰로 나섰다. 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를 몰면서 미세먼지를 피한다는 미명하에 미세먼지를 만들며 이동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다.

아무튼 고마우 존재들의 가치는 내가 당장 불편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 드러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인생이란 이렇게 불편하다가도 다시 익숙해지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어느새 잊어버린다. 어찌 보면 삶의 커다란 적은 익숙함일 것이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려면 조금 낯설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평범한 일상도. 늘 눈에 보이는 물건도, 조금만 낯설게 보면 익숙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낯설게 볼 수 있을까? 나는 오래된 한 권의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학창시절 헬렌 켈러가 쓴 수필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딱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지에 관하여 쓴 책이다. 첫째 날은 주변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고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 날은 미술관에 가서 세상의 아름다운 명화를 감상하는 것이고, 셋째 날은 해 뜨는 광경을 보고 싶다고 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인가? 그리고 그녀는 수필의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넣었다. "내일이면 앞을 못 보게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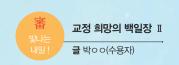
헬렌 켈러는 우리의 평범하고 무심하게 보이는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애타게 그리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처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말해주고 있다. 자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허투루 보내고 있지 않은가. 헬렌 켈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는 기적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소중하게 보일 것이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참회, 용서 그리고 후회에서 피어난 한줄기 희망. 가족!



39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늦게 밀려오는 감정은 바로 후회이다. 후회라는 말은 참 다양한 감정을 교차시키게 한다. 한숨, 안타까움, 절망, 회한 등 부정적인 단어들의 조합이다.

어여쁜 여성에게 고백할까 말까 하는 두려움에 갈등하다가 고백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후회, 조금만 더열심히 공부할 걸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안타까운 후회, 잘못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하고 죗값을 치르면서 한쪽 가슴을 움켜쥐며 자괴감을 느끼는 절망이라는 감정까지. 후회라는 감정은 사람의 인생바닥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 자유를 속박당한 몸이 되다 보니 밖에 있을 땐 생각지도 못한 회한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나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 죗값에 대해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판사님께 이렇게 얘기한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피해자에게 용서?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참회? 나는 그 무엇보다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던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한 용서를 빌고 반성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가족이란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다. 가장 소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간과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존재 말이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나를 믿고 신뢰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뒤로한 채 가족들의 믿음에 비수를 꽂고 만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하고, 여동생의 존경심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듬직한 믿음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다. 순간적인 범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브가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사과를 베어 물어 원죄를 지었듯이 나는 그렇게 범죄 속으로 잠식되어 갔다. 잠깐의 쾌락은 인생 모든 것을 가진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화는 나를 유흥과 사치, 그리고 자만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정신을 차린 순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후라 후회를 해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원래부터 이러지는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성실하고 착했던 내 모습은 어디로

'교정 희망의 백일장 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버린 거울 속의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을 부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내 뒤의 악마나 내 앞의 불구덩이는 나를 꼼짝없이 범법자라는 울타리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버렸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순간 이미 난 수의를 입고 거실번호와 수번의 낙인이 가슴에 찍힌 죄수였다. 인정하기 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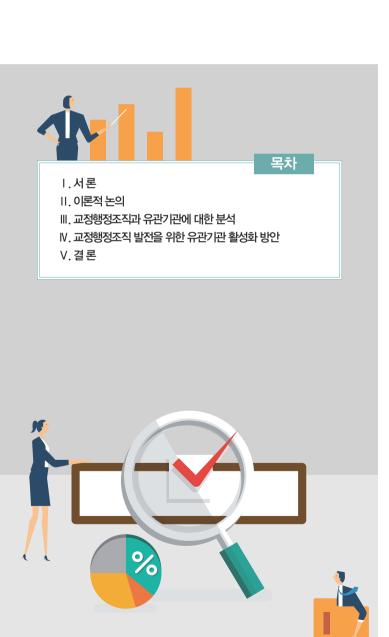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나 자신이 아닌 나를 사과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 뱀과 같은 인간들이며, 그들로 인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밉고 중오스럽고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고,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꿈 많던 불쌍한 청년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족들의 피눈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시간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라 했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중오, 미움, 원망보다는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주는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눈앞에 아른거렸다. 접견 오신 어머님의 눈물과 아버지의 안타까워하시며 찡그리신 미간의 주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응원하는 여동생의 외침이 3평 남짓한 공간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내가 진정으로 힘들 때 마지막까지 나를 응원해 주고 믿어주는 보금자리는 타인도 지인도 아닌 가족이라는 울타리이다.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그 이름. 가족! 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함이 다시는 어둠의 동굴 속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죄책감과 반성, 그리고 참회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덕목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이다. 연민과 그리움이 수반되어야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가식적인 사과와 형식적인 사죄가 아닌 나의 버팀목인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과오를 뉘우치는 마음 말이다. 2019년 기해년은 나에게 솔직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질적 행복이 아닌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의 시선을 통한 행복이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초석이 바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해 보고 기원한다.



교정행정조직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下)*





Ⅲ,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에 대한 분석

3. 교정행정조직 사회복귀과 소관 단체 근거법 및 법인³ 현황

1) 교정행정조직 내 사회복귀과 업무 역할과 기능

우리나라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한다는 것이다(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시행). 이 법의 기능은 수형자 및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교정 교화 업무에 대한 일련의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교정행정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구금으로 인하여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중간처우제도는 중·장기 수형자에게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업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수형자의 교회를 위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업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 수형자의 귀휴, 사회견학 및 봉사체험 관련 업무, 교정시설에서의 봉사활동가의 지도관리 업무, 수형자를 위한 교화방송 업무, 수형자 가족만 남 프로그램 업무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과의 교정행정의 업무 및 시행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2019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글은 2018년 교정연구 제 28권 제4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접수일(2018, 11, 30.), 심사일(2018, 12, 18.), 수정일(2018, 12, 20.) 게재확정일(2018, 12, 27.)
- 3)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조에서 공식적 조직은 그 조직의 정관 및 회칙, 운영규정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행정책임가, 직원 등의 배열으로 구성되어져 조직의 계획된 목표에 의해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상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최성재/남기민, 2004:130). 교정행정조직의 소관기관 등의 조직은 이에 해당한다

〈표 2〉 교정기관 내 사회복귀과 업무 및 시행 내용

사무 부속 기관	업무 내용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회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제도 연구
복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
귀 과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피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회방송에 관한 사항
	수형자의 귀휴·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업무내용 참고, 2018.

3) HI여기Ho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취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의미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것 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민법 제32조).4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에 관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 법·사회복지사 업법·의료법·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타 의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많이 있다. 비영리법인 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경비의 보 조 등의 세법, 보고 및 사무의 검사 그리고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 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제14·15조, 의료법 제29·63조 등), 따라서 교정행정 조직의 사회복귀과에 소관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사)한국불교교 화복지선도회, (사)새생명운동본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사)한국교 정선교회. (사)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 등이 있다(교정본부 사회복귀 과 소관 법인 현황, 2018).

3) 공익법인

자선 · 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 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 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일반의 이 익이라 할 수 있는 학술·자선·기예·종교·사교 등의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사단법인과 재 단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그 밖의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그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해진다(민법 제32조), 공익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14호)이 제정되어 있 다 (이병태, 2016). 교정행정조직에 소관 되어있는 비영리 공익기관 은 (사)기독교 세진회, (사)한국교정복지회, (재)같이함께 등이 해당 된다(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소관 법인 현황, 2018).

4)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 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 정 다수로 구성되어야 할 것, 둘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 지 아니할 것, 셋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 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 4) 비영리법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비영리시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을 들 수 있다. 영리란 의미는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을 분배를 하지 않는 한 비 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 마련을 위한 입 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 자작도예품의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두산백과, 비영리법인)
- 5)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첫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02, 2013, 03, 23, 2014, 11, 19, 2017, 07, 26.), 둘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 05, 18).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넷째,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 법률 제14839호, 개정 2016. 5. 29.). 이 법의 기본방향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목적에 맞는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교정행정조직내의 비영리민간단체로는 2013년 1월 10일에 설립된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등이 있다(교정본부 사회복귀과. 2018).

5)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소관 법인 기관

우리나라 교정행정조직이 추구하는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공공의 가치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 활동 조직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의 공익달성을 위한 민간자원의 발굴과 개발의 중요성이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는 서로 상호 의존 업무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또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고유한 영역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서로간의 영역에서 각자의 유사성과 장점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 중심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김정인, 2016: 160, 176). 2018년 6월 현재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의 소관기관은 비영리법인 5개, 비영리·공익법인 3개, 비영리민간단체 1개가 있다. 이들 기관은 감독기관인 교정본부에 의해 법인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귀과의 소관법인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기독교세진회(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한국교정복지회(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비영리법인), (사)새생명운동본부(비영리법인), (사)새희망교화센터(비영리법인), (사)한국교정선교회(비영리법인),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비영리법인),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비영리 민간단체), (재)같이함께(비영리법입+공익법인이 있다. 이들 소관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의한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3-1,3-2〉〈표4〉〈표5〉,(2018, 06, 30 현재).

⟨표 3-1⟩ 법인 현황 및 설립목적과 관련 근거법: 비영리 법인(설립날짜 순)

법인명	(사)한국불교 화복지선도회	(사)새생명 운 동본 부	(사)한국교 정선교회
근거법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허가일	1989, 12, 28,	2001, 06, 08,	2001, 09, 06,
설립 목적	불교의 자비정신 구 현을 통한 수용자 교 정교화 업무 지원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 한 수용자 의료선교 등 교정교화, 교정공무원 및 자녀지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 여 복음전도와 교정교 화 시업전개
이사장/ 직업	송수왕(법정스님)/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엄기호 성령교회목사	송주섭/前서울지방 교정청장
임원수	7명(이사6, 감사1)	11명(이사10, 감사1)	22명(이시20, 감시2)
회원수	20명	200명	71명
수입방법	회원회비, 후원금등	회원회비, 후원금등	회원회비, 후원금등
결산 및 예산 (단위:원)	2017년결산 8,550,000 2018년예산 36,430,000	2017년결산 41,017,763 2018년 예산48,634,563	2017년결산 62,547,867 2018년 예산 68,004,157
소재지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 4 대한 불교 삼보 조계종 총무원 50915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191 성령 교회 12768	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107 으뜸 교회 16001

⟨표 3-2⟩ 법인 현황 및 설립목적과 관련 근거법: 비영리 법인(설립날짜 순)

법인명 구분	(사)천주교사회 정사목위원회	(사)새희망 교화센터
근거법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허가일	2003, 05, 15,	2013, 12, 27.
설립 목적	그리스도교의 복음정신에 입각한 수용자 선교와 출소자 재범방지 를 위한 교정시목 지향	수용자와 출소자에게 심리적·물 질적·환경적 도움을 주고, 효율 적인교정교화 기법을 연구
이사장/직업	유경촌(주교)/ 교구장 대리 신부	김성기/ 세계로 교회 담임목사
임원수	7명 (이사5, 감사2)	9명 (이사7, 감사2)
회원수	6,410명	134명
수입방법	회원 회비, 후원금 등	회원회비, 후원금 등
결산 및 예산 (단위:원)	2017년결산 2,254,730,000 2018년 예산 2,341,041,000	2017년결산 35,292,124 2018년예산 39,000,000
소재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7 02862	대전 서구 벌곡로1384번길53 세 계로교회 35388

출처: 2018,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소관 법인 현황 표

(표 4) 법인 현황 및 설립목적과 관련 근거법: 비영리 법인·공익법인(설립날짜 순)

법인명 구분	(사)기독교 세진회	(사)한국교정 복지회	(재)같이함께
근거법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허가일	1980. 03, 24,	1989. 04. 22.	2015, 07, 03,
설립 목적	기독교 정신에 입각 한 수용자 선교봉사 및 교정교화 활동	기독교 신앙을 통한 수용자 교화업무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처우 활동	수형자, 출소자 가족에 교육 기회, 장학, 복지, 무담보대출 사업 제공, 나눔 실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장학・복지사업, 이주민, 다문화, 세터민 가족 복지사업, 무 상법률지원 등
이사장/ 직업	정지건/ 이화약국 대표	이정원/ 주하늘교회 목사	안대희/ 前 대법관
임원수	13명 (이사11, 감사2)	11명 (이시9, 감사2)	7명 (이사5, 감사2)
회원수	341명	87명	기본재산: 8억5천 보통재산: 1억7천1백
수입방법	회원 회비, 후원금 등 (지정기부금 단체)	회원 회비, 후원금 등 (지정기부금 단체)	출연금, 후원금 등 (지정기부금 단체)
결산 및 예산 (단위:원)	2017년 결산 317,345,489 2018년 예산 300,747,770	2017년 결산 68,565,973 2018년 예산 114,233,253	2017년 결산 107,349,862 2018년 예산 80,000,000
소재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성대로573 을지대 학교 뉴밀레니엄센터 지하104호 13152	서울 강북구 삼양로 41길 49 주하늘 교회 01188	서울 서초구 서초대 로 50길 8 관정빌딩 13층 06645
		3 31. 0040 - 31 11 11 11 21	보기의 그리 비사 취취 표

출처: 2018,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소관 법인 현황 표.

⟨표.5⟩ 법인 현황 및 설립목적과 관련 근거법: 비영리 민간단체

(표 5) 법인 연광 및 설립국식과 관련 근거합, 미정디 린간단제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2013, 01,10.(제150호)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관계회복 지원		
김옥령 /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8명(이사7, 감사1)		
177명		
회원 회비, 후원금 등(지정기부금 단체)		
2017년 결산 41,461,646 2018년 예산 90,000,000		
서울 양천구 오목로 48길 28(신정동), 1층 08023		

출처: 2018,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소관 법인 현황 표.

6) 교정행정조직의 협력 교육기관 조직

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은 법의 대중화와 준법교육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상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사법교육원은 교정본부에서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 활동하는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형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정심리 상담 등 제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 교육 연구와 개발, 청소년 비행연구와 정책개발,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교육, 외국인 근로자 및이주자 생활법률 교육과 상담 등에 주력하고 있다〈표 6〉.

⟨표 6⟩ 교정본부 협력 교육기관

(표·0/ 파/8년구 협약 파파/1선			
법인명 구분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근거법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법무부 법문화 진흥 센터 지정		
허가일	2008, 05, 23,(124121–0024386)		
설립목적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법교육 연구, 개발을 통하여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		
이사장/직업	이영근 / 경기대학교 교수		
임원수	임원 11명(이시9, 감시2)		
주요교육 프로그램	시민로스쿨 법사랑위원 전문화 과정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교육		
자격증 프로그램	• 청소년생활지도사 • 교화상담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한국사법교육원 빌딩. 22314		

출처: (사)한국사법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Ⅳ. 교정행정조직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활성화 방안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은 독자적으로 생존해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조직은 다른 조직 간의 협력관계에서 생존해 나갈 수 밖 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 보다는 상호협력의 결과로 인해 외부의 침해로부터 방어가 가능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된다는 것이다.(유 종해/이덕로, 2015: 62), 조직에서의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 해서는 조직의 특성이나 운영을 촉진시키고 조직을 유지・발전해가 기 위한 전략적 행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처럼 조직 발전⁶⁾은 조 직 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성장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시스템의 과정에서 개입을 강조한다. 이에 조 직의 계획된 특수한 목적과 독특한 기능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획되어지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이영균. 2015: 808-809). 그렇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행정이야말로 교정행정조직에서의 광의와 협의의 개념을 포함한 총체적인 교정행 정 활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정행정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 질수록 유관기관과의 협업행정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조직과 관련된 유기적 기관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 관리자는 유관기관 및 소관기관 등의 조직에게 교정조직을 위한 원조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협력기관의 자원과 기술, 지식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 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협력기관의 자원 활용 방법에 대한 수준 높은 지도와 긍정적 피드백에 의한 에너지⁷⁷ 발산은 결국 조직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가시적인 목표 달성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정무성/박차상 역, 2002: 151).

둘째, 교정행정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 발굴 및 획득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을 유지·발전시키고 대인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나 예산, 전문 인력 확충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각 일선 교도소별 맞춤형 교정정책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행정활동의 접근법은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교정조직행정의 성과에 대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정무성/박차상 역, 2002: 29, 164).

셋째, 교정행정조직 내의 민간 자원봉사자의 세심하고 효율적인 활

용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인업무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은 인적서비스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내의 사회복지실천서비스 차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복지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역량과 기능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게된다. 그러나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의 전달체계 운영주체인 조직관리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에 앞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에 대한 업무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훈련된 자원봉사자의 자원과 기량을 적절히 발휘하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정행정조직을 관리·지도하는 관리자는 통솔력을 겸비해야할 것이다.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간 상생협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직 간에 협업체계를 발전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조직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이해와 조직관리자의 역량 및 지도력은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게되어 조직의 성과 달성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 관리자의 지침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인격적 품성과 행동적 통솔 스타일을 들 수 있다. 인격적 품성을 나타내는 요소 로는 언어, 행동, 성숙한 인격, 지성, 다재 다양한 재능 등을 포함 한다.

반면, 지도자의 행동적 통솔 스타일의 행동유형8으로는 지도자의 행동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좋은 행동으로 용인되는 행동, 조직의 목표성취를 위한 행동, 조직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행동, 배려와 사려를 나타내는 행동, 업무 성과나 생산성에 대해 강조, 조직 간 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민감성이라 할 수 있다(오두범, 2004: 298-305).

다섯째, 교정행정조직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유관기관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교정조직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서비스기관의 전문성을 기능별로 파악하여 교정업무에 적절히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발굴된 지역사회서비스 조직 구성원들을 교정사회복지 전문화 교육과 이들을 적소에 활용하게 된다면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적극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거시적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기반 한 교정조직과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모델이 재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 6) 조직발전의 핵심은 인적자원개발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전략, 정책, 절차, 업무 진단에 대한 태도, 조직목표, 그리고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발전은 조직의 효과성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전체조직에서, 계획되고, 상부에 의해 관리되고, 행태괴학연구에 기반을 두는 일련의 계획된 개입이다((이 영균, 2015, 809).
- 7) 래프와 포에트너(Papp & Poertner, 1992)는 인간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활용의 원리로 첫째,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지지 · 강화하 고 둘째, 성과 및 문제해결에 방해요인을 분석하고 셋째, 미래의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 했다
- 8) 오하이어 주립대학(RM.Stogdill & A, E, Coons, 1957)의 바람직한 지도력 유형의 모범답안 모형개관에서 바람직한 지도지의 행동유형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 이 제시했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만한 행동, 둘째,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대하 긍정적인 행동, 또한 외부단체나 기관 등과의 관계에 대해 조직의 성과나 성취를 위한 대변자로서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 동, 셋째, 조직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가는 행동, 조직의 갈등을 감 소시키고 조직 내에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 넷째, 상호신뢰와 따뜻한 우 정을 나누는 행동 등, 다섯째, 조직 내의 업무나 사명을 성취시키기 위해 조직의 활동을 더욱 강조하는 행동, 여섯째, 조직 내외의 부정적 역동에 대한 관계나 압 력에 대한 민감한 인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일곱째, 조직 간의 관계나 구조 를 조직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 가동 능력, 업무 추진을 의한 수립방식 능력 등이다(원석조, 2011: 142)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무부의 교정행정조직의 유관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외부자원을 조직 행태변수로 규정하여 조직 간에 미치는 상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리 측면과 행정학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조직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상호 목적 지향성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상호호혜적인 전달체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교정행정조직의 법률적 전달체계인 타기관을 유관기관, 소관기관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단체의 실태 및 예산 현황과 설립 목적, 설립주체 그리고 대인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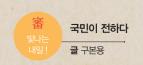
앞서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사회의 조직은 독자생존이 더 이 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조직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성과를 신출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정행정조직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의 기준이나 특성, 활동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유관기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유형 구분의 기준과 교정행 정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에 대해 세부적인 역할 분 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정행정조직의 정책적 개선방향을 위해 법률의 명시에 따른 유관기관의 개념과 지정 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공유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의 증가와 다양한 위기상황 대처에 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정행정조직의 발전을 위해 원조활동을 하는 공적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행정상의 업무역할 및 교정사회복지사 채용에 대한 정 책도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조직 은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활동을 위하여 외적인 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조 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부 조직과의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형성하 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 교정시설에서 의 특수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사회복지인 력이나 사회복지학 전공자에 대해 교정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교정사 회복지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복지학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 서비스에 대 해 집중적인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실천영역인 교정복 지 전문가 교육과 이러한 인력을 교정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교정 행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 기에 더해 교정사회복지인력을 교정행정조직과 상호적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사명에 적합한 업무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 게 된다면 조직간 전달체계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교정행정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간에 미치 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교정행정과 관련 된 유관기관 활용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였 다. 본 연구 또한 조직성과에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해 이론적 탐색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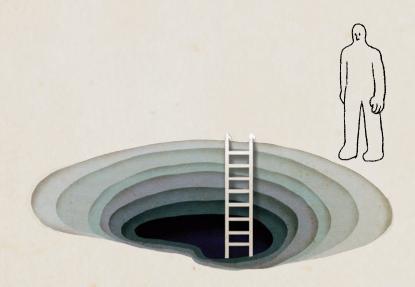
후속연구에서는 교정행정조직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협력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설문지 개발과 조직 간 의사소통 분석, 소관 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정교화프로그램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화 속 세 가지 메시지와 교정에 대한

'이 시시난년 호나'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마치고…



"희망은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쇼생크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톰 로빈스가 한 명대사이다. 어쩌면 이 대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멘토이자 가치관을 심어 준 소중한 메시지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 덕분에 50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내 얼굴이 밝고 마음도 편안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 메시지 외에 영화를 본 누구나 공감 할 명장면으로 자유를 갈망한 자가 감옥을 탈출하고자 더러운 하수구 긴 구덩이 터널을 지나 비로소 탈출에 성공한 장면을 들 수 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맥스이자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현실감 넘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장면으로 인해 영화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큰 울림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영화에서 조금은 근엄하고 부담스러운, 그리고 의아스러우면서 어쩌면 현실일지 모른다는 메시지 하나가 전달된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구별이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악의 평면적 구조를 통해 그 심판의 대상이 교도 소장이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의 주인공인 톰 로빈스는 그 고통과 억압을 뚫고 자유를 만끽하고 친구를 맞이하게 된다. 사실 이 영화를 통해 얼마 전까지 남아있던 내 속마음은 교정행정과 교도관들을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수용자 혹은 수용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저 사회와 격리되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입장이었다.

"40년 동안 허락 받아 오줌을 쌌다. 허락 없이 오줌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이 대사는 영화의 주인공과 함께 극을 끌어가는 인물인 모건프리면의 대사이다. 사실 이 대사는 주인공의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깊게 보거나 공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 즉 죄인은 그 죄값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세 대사들을 다시금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는데, 그것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 조직진단 국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터다.

사실 처음에는 '국민참여단 활동을 한다고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참여단 활동을 모두 마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교정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나 자신이 놀라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다. 영화를 빗대어 표현하자면, '교정직 공무워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수용자들이 허락을 받고 오줌을 싸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국민참여단 활동을 하기 전, 교정이라는 업무와 교정공무원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려져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해당 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참여단 활동으로 교정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민참여단이 직접 방문한 교정시설이 4곳이고,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들이 동행하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정에 대한 인식전환인데. 현장진단 이후 인식이 많이 바뀌어 수용자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격리되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시각에서, '사회복귀를 통해 함께 생활해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분류심사와 심리치료 같은 재범방지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국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새롭게 든 생각은 향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 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왜 심리치료를 해야 하고, 분류심사로 왜 맞춤형 처우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수용자를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리라. 또한 장기적으로는 초중등 교과과정에도 교정공무원과 교정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민참여단 활동이 교정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마중물 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계기로 교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심 가져 지기를 바라며 나의 국민참여단 활동 후기를 마친다.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새 옷을 입고 묵묵히 그 자리를 빛내주세요."

직장인 이준성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준성이라고 합니다. 저 에게 있어서 교정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늘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묵묵히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18년 만에 근무복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경되는 근무복의 디자인과 색상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교정공무원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능률 향상과 함께. 나라를 수호한다 는 자긍심 및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복 변경은 물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해소 및 안전 교

> 정업무를 위한 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 준으로, 국내 교정시설 정원은 약 4만 7.000명에 육 박하고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은 약 5만 4,000명 수 준으로, 수용률이 11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 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사건 사고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조만간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대한민 국을 유지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 하는 봄, 교정공무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국민들의 따스한 응원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사회 속 작지만 큰 불빛

대학생 이도현

저는 평소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서가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책들의 모습과 그 향기에 서점에 자주 들르곤 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서가들 속 한쪽 모퉁이에 있던 초 록색 책 커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목은 job interview: 교정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익숙한 단어이나 '교정공무원'이라는 단어는 생소함 그 자 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교정공무원들의 인터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바로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어느 한 분의 답 변이었는데요. "수용자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인도하여,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킨다. 그리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용자 들에게 일종의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는 교정공무원들의 모습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비록 그 불빛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아주 낮은 곳에서 빛을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빛이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엄청난 크기의 불빛 과 맘먹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의 그 불빛은 지금은 미미한지 모르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수용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에 전해질 것이라 저는 믿습 니다. 교정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교정을 위한 교정시설 건축을 이야기하다

교정시설 설계표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교정교화에 중점을 둔 시설의 패러다임 전환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현행 교정시설의 공간별 성능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 등 3년 동안 연구한 '교 정시설 설계표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가 박 상기 법무부 장관, 최강주 교정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이슈 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직무 환경 등을 건축적인 관점에 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백진 교수는 "교정의 이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시설은 이러한 이념을 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구금 위주의 시설이 아니라 교정교화에 중점을 둔 시설로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라고 발표회의 포무을 열었다

백진 교수가 제안한 건축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수 용동 형태의 변화로 전주형 수용시설 대신 데이 룸 타입의 수용시설을 제안했다.

데이 룸은 주택의 거실에 해당하는 휴게 공간과 유사한 수

용자 공동생활 영역으로 수용거실 한가운데 근무자실을 배 치해 자유롭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데이 룸 수용시설은 처우등급별로 영역 분류가 어려웠던 전주형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주형에 비해 계호 사각지대가 적 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백 교수의 설명이다.

둘째는 업무프로세스 연계 등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다. 기존 분리되어 있던 직업훈련과 사무실을 작업동 인근에 위치시키는 한편 영치품 등의 물품창고를 수용시설 인근에 재배치하는 등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셋째는 직무 환경의 개선이다. 팀 사무실을두 개의 근무자실 사이에 배치해 협업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지를 조성해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직무 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교정본부 내 교정시설 기획・설계전담기구 구축을 제안해 교정본부의 건축 역량 강화와 기존의 기본설계 후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기본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을

지난 3월 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백진 교수가 2016년부터 3년간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치열하게 연구해온 결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결과 발표회에서는 '더 나은 교정을 위한 교정시설의 건축 방향 제언'이라는 타이틀로 수용동 형태의 변화와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등의 건축 방향을 제안했다.

제안했다.

백 교수는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교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이 시점에서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수용시설만 확대 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교정사고와 재범률의 증가를 더 욱 가중시킬 것입니다"라며 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가 당면한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교정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라며 결과 발표를 마쳤다.

더 나은 교정시설을 위한 열띤 토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새로운 교정 시설 건축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첫 질 의자로 나선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은 "이렇게 건축 방향을 계획하게 되면 인력 감소 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했고, 이에 백 교수는 "전주형은 보통 3층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한 층당 근무자들이 한 사람씩 배치됩니다. 그런데 2층 형태로 데이 룸이 들어가는 방식은 근무자가 한두 사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도관 한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라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조록환 시설담당관은 "데이 룸 타입은 수용 면적이 20% 중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이지만 공사비도 5%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 증가 대비 효과가 충분한가요?"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백 교수는 "당장 공사비가 더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 룸 타입은 복충형 구조이며 그 위에 또 다른 데이 룸을 얹을 수 있어서 수용시설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지기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데이 룸의 효과 및 업무 공간 배치 문제, 수용자들의 안전사고, 접견실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이번 발표회는 더 나은 교정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본부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장, 수원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지난 3월 26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수원구치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번 방문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주 요정책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책현장 방문 직후에는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 개원식 개최

지난 3월 6일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 개원식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개최되었다. 최초의 여성수형자 전담 심리치료센터인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에서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이고체계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19년 1분기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2019년 1분기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를 포함한 출소예정자 1,024명과 구인업체 300여개가 참여하였으며 현장면접, 신용회복 및개인회생 상담, 창업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홍콩 징교서 저축협동사 임원단 방문

지난 3월 26일 홍콩 징교서 저축협동사 사장 완밍기 등 36명이 한국의 교정시설을 참관하고 교정공제회 운영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및 교정공제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한국의 선진 교정시설을 알리고 교정공제회 운영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었다.

※ 징교서는 한국의 교정본부에 해당하며 저축협동사는 교정공제회와 유사

법무부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지난 3월 12일 시작된 법무부 국민참여 조직진 단이 4월 3일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범죄자 재범방지 업무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분류심사 및 심리치료 업무에 대한 현장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교정본부는 이번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스마트밴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채택

지난 3월 20일 교정본부의 '스마트밴드' 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의 수요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스마트밴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향후 교정본부는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스마트밴드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스마트밴드 : 수용자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 발찌를 착용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행동패턴 데이터를 수집,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여 교정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용자 관제 시스템

04 2019

. 54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기관장 회의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3월 8일 전국 교정기관장 회 의에 앞서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장 회 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 소속 교정 기관장이 전원 참석하여 '교정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방안, 현업·비현업 공무원 지 정 ·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지정 수 형자 최소화 방안'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 을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공유하 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교정은 행복을 싣고' 코너 참여

서울구치소는 3월 6일 월간 〈교정〉의 '교정은 행 복을 싣고' 코너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구치소 민 원실에 맛있는 간식이 배달되었다. 민원실 직원 들은 잠시의 휴식시간을 매우 즐겁게 보냈으며,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양교도소는 3월 22일 『(사)한국청소년폭력방 지협회」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원, 수용 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최강주 교정본부장, 수원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및 정책현장 방문

3월 26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수원 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교정위원과 관계 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만동 노블 레스 컨벤션 센터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간담 회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박종국, 박춘배, 전희도, 안성호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이 전달되었다.

서울동보구치소 | 교사 취재와 네팔 대검찰청 대표단 참관 실시

3월 14일 네팔 대검찰청 대표단이 서울동부구치소 를 방문해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시설현황 청취 후. 구치소 내·외부시설을 참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설참관을 마친 네팔 대검찰 청 대표단은 도심 속에 현대식 빌딩과 조화를 이룬 서울동부구치소의 최신 설비 및 교정행정 절차가 네팔의 교정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한국 교정행정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3월 13일 인천구치 소를 현장 방문하여 수용관리 실태 및 교정행 정 주요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모범교도관 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원간담회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복종우

부산시 사상구청 임직원, 시설 참관 실시

3월 22일 부산시 사상구의 당면 현안인 부산구 치소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 사상구 구의원, 구청장 및 직원들이 서울남부 구치소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에 서는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시 청하고, 구치소 내 수용시설과 체육관, 어린이 집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화성외국인보호소와 협업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19일 화성외국인보호 소와 협업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지시 에 따른 것으로 "이웃한 양기관 간의 협업관계 증 진을 통해 교정과 출입국이 업무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여 보다 나은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3월 11일 한국수레평생교육원 소속 개그우먼 정은숙 등 5명의 외부강사를 초 빙하여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각종 업무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웃음을 통해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국군교도소 방문

여주교도소는 3월 12일 교정행정업무의 교류와 업무협의를 위해 김일환 여주교도소장 등 4명 이 국군교도소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군교 도소의 시설과 수용관리시스템, 교화프로그램 등을 참관하였으며,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 하여 논의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3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 지공단 법무보호위원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등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 관은 기관현황을 브리핑한 후 중앙통제실, 직 업훈련동과, 수용동, 심리치료센터 등을 둘러 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3월 19일 춘천교도소 를 방문하여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업무보고 후 중앙통제실 · 수용동 작업장 등 구내 순시, 모범교도관 시상식, 직원과 의 담화 순으로 이루어졌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초빙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원주교도소는 3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원주청원학교 행정실장 송찬호)를 초빙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부정청탁행위 유형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이 청

렴행정을 실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있도록 진행되었다.

강릉교도소 '출정 중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강릉교도소는 3월 11일 출정 중 수용자 도주사 고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 였다. 이날 훈련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와 합동으로 이루어졌 으며, 강릉지청(원)의 건물구조와 주요 예상도 주로 숙지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 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되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영월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단원 12명과 교정공 무원 12명은 3월 18일 사회복지법인 '함께사는 사람들'에 방문하여 시설 내 청소 및 위로 공연 을 하였다. 이번 활동으로 수용자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3월 19일 전 직원을 대상 으로 전문 강사(청렴외부 전문 강사 이문국)를 초 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화요문화행사 조영남 콘서트 실시

소망교도소는 3월 26일 '조영남 콘서트'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수용자의 인성변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0 여 명의 공연팀과 함께 60분간 진행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기관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3월 12일 소속 기관장과 부서 장이 참석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방안」을 주 제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속기관별 수범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공 유, 기관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소속 기관별 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 행하여 참여 기관장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자 축하 다과회 실시

대구교도소는 3월 6일 소 내 종교관에서 독학 학위제 학위취득자 12명을 대상으로 '독학학위 제 학위취득자 축하 다과회'행사를 실시하였 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위취득자 중 A씨는 무기수로 수감 중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를 연 달아 합격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 독학사 공 부를 시작한 이래 8년 만에 합격을 하여 학위 를 취득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3월 28일 부산 서면 에 위치한 터존뷔페에서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를 개최하였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해 불우수용자 생활지원, '사랑의 멘토링데이' 행사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 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구 봄철 나른함을 날리는 '교도관 체력100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3월 22일 〈국민체력100 안동체력인증센터〉의 협조로 '교도관 체력

100 행사'를 실시하였다. '교도관 체력100행사' 는 국가공인인증 기관인 (국민체력100 체력인 증센터〉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직원 개개인의 체력을 측정·평가하여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 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주요시책인 '행복한 직장만들기'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민원서비스 환경개선 실시

창원교도소는 3월 29일 기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가 는 점을 인식하고 민원응대실 환경개선을 실 시하였다. 시설개선에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극 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응대자를 보호하기 위 한 차단막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청렴한 부산교도소 만들기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3월 20 일 교도소 진입로에 영산홍과 벚나무 심기 식 목행사를 겸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직원과 30여 명의 지역주 민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 상호 간의 화합과 우 의를 다지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변화상을 널 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포항교도소는 3월 13일 기관운영에 대한 자문 과 교정행정의 홍보를 위한 교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교정자 문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준수사항 및 청탁금지 법 이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헌 반부패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실시

진주교도소는 3월 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여하여 '반부패

정 58 2019

대구구치소 | 교사 곽명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 검진 실시

대구구치소는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수성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 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혈액검사, 신체계측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제공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 직원의 건강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향상된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3월 20일 청송효나눔복지센터(노인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발 및 환경정리를 통한 재능 기부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건전한 정신의합양으로 수형자 심성순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되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안동교도소는 3월 20일, 수형자 취업 알선을 위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출소가 임박한 수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등 4개 구인업체와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복지'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가 참여하여 취업 관련 구직정보 제공 및상담을 통해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헌 진보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3월 19일 관내 진보중학 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전달 행사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진행된 행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적 우수 학생 1명과 효행 학생 1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2019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3월 21일 김천시 율곡동 소재 하늘빛정원에서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김천소년 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화사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신임회장 선출 등 임원 선출, 유공위원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및 소장 감사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이유성 수용자 탁구교실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수용자 8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탁구교실을 진행하였다. 이번 수용자 탁구교실은 수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실시

울산구치소는 3월 27일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진주영 팀장을 초빙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주제는 자살 우려자에 대한 파악 방법 및 상담, 체계적 관리를 통한자살 예방법 등이었다. 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분노 관리 방법 및 자살 위험성 사전 징후 조기 파악 등 자살 관련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봄맞이 대청소 실시

경주교도소는 3월 11일부터 3월 15까지 각 사무실별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미세먼지와 겨울철 쌓인 먼지를 말끔히 쓸어내기 위하여 각 과별로 하루에 한곳씩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2019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통영구치소는 지난 3월 7일 용남면 웨딩스토리 연회장에서 교정위원 4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2019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결산보고 및 2019년도 사업 계획 예산 심의에 이어 교정교화 유공인사 5명에 대한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및 소장 표창 수여를 진행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정유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3월 14일 밀양구치 소를 방문하여 주요역점시책 추진상황 및 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정유철 청장은 업 무현황 청취 후 중앙통제실 심리치료센터, 수용 동, 직업장, 밀양희망센터 등을 순시하며 현장직 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달팽이 봉사단' 장학금 전달식 실시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3월 29일 상주 시 소재 사벌초등학교와 상주중학교 학생에 게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적우수 학생, 선행 또는 효행 학생, 그리고 가정형편이어려운 학생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사벌초등학교, 사벌중학교 각 3명, 총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기관장 회의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3월 7일 '사무보직 기피 현상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기관장회의를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국민참여단 현장 진단 방문

3월 19일 국민참여단 56명은 효율적인 조직 진단을 위하여 대전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조직 진단 개요 설명을 듣고 통제실 및 분류심사과, 취사장, 대전(청)분류센터 등을 참관하였다. 또 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도관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구인·구진 만남의 날 행사 실시

청주교도소는 3월 18일 출소예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2019년 제1회 구 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 25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인 ㈜KC푸드 등 8개 업체가 참 여하여 일대일 현장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 관기관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취업 및 창업지 원 등 진로상담을 진행하였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직원 화합 족구대회 개최

천안교도소는 지난 3월 11일 직원 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워라벨 시대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직원 화합 족구대회 운영을 계획하여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 활기차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심리치료센터 개원

청주여자교도소는 3월 6일 청주여자 심리치료 센터를 개원하였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4 개의 전용 교육실, 전문 상담실 등을 갖추었으며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 사범 등 특정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 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임상심리사 등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지속적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한국영상대학교 경찰행정과 학생 참관 실시

공주교도소는 3월 22일 지역 대학교인 한국영상 대학교 경찰행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 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경찰행정과 학생이 유관 기관 업무를 미리 체험 할 수 있도록 시행되 었다. 이날 공주교도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시설 참관, 호송버스 탑승 체험을 해 보는 등 추후 경 찰 업무를 하면서 유관 기관인 교도소를 알 수 있 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참관 소관을 밝혔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외부정문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충주구치소는 3월 8일 외부정문 앞에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완료하여 직원 출·퇴근 시 외부 정문 근무자의 업무를 경감하게 되었다. 또한 외 부인 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보안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도관 참관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28일 몽골법률집행대학 교도관 20명 및 법무연수원 직원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하였다. 몽골

대표단은 개방교도소 수용거실, 만남의 집 등 구내·외 시설을 둘러보고, 깨끗한 환경과 선 진화된 수용자 처우프로그램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참관을 통해 양국의 우호협력은 물론 대한민국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 대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기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에 따른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직원들 스스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과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및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사랑의 손잡기 장학증서 수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3월 21일 소 인근에 위치한 성연중학교 학생 중 성실한 학교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을 선 정하여 장학증서 및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민원실 출입구 경사로 공사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3월 7일부터 민원접견실 출입구 보도블럭과 계단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 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사로 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불편함을 해소 하였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앞으로도 민원인 과 직원복지를 위해 기관 내 미비점을 찾아 지속 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04 2019

°. 60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구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기관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3월 6일 정부광주지방합 동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청장, 산하 기관장 및 광주청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 한 기관장들은 「교정본부·지방교정청 및 일 선기관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대체복무제 도 입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및 「정신 질환 수용자의 효율적인 수용처우 및 관리 방 인」에 대한 기관별 주제발표 및 토의를 진행 하였다. 이번 회의는 일선 근무현장의 업무수 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발전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윤재흥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지난 3월 12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간부 신고, 현황보고, 구내순시 순으로 진행되었으 며, 심화되는 과밀수용에 대한 광주교도소의 자체 해결 노력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 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격려하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김도훈 직원식당 메뉴 선호도 조사 실시

전주교도소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의 일환으로 3월 11일부터 직원식당의 메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사 를 반영하여 음식 메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설문조사 를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수형자 전문학사 입학식 실시

순천교도소는 3월 7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19 순 천제일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 & 외식조리과 제2회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입 학식은 안효승 제일대총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25명의 신입생과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되었으며, 입학식이 끝난 후 신입생과 가족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가족과의 유대를 돈 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용 '수용자 응급처치 경연대회' 실시

목포교도소는 3월 22일, 수용생활 중 긴급한 상 황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자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수 용거실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에게 신 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하 여 운동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시간을 이용하 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외부강사 초빙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3월 4일 군산 성폭력상담소 김 혜영 소장을 초빙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날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 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제주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청렴실천 결의대 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의지를 적은 카드와 자신의 사진을 청렴나무에 부착 하여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업무와 생활에 있 어 모범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장흥교도소는 3월 11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결의대회는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 의문 선서를 통하여 음주운전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는 시실을 일깨우고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건전하고 신뢰받 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전남소방본부 특수구조팀 참관 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3월 7일 전남소방본부장 변수 남 등 14명을 초청하여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 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의 교정행정에 대 한 이해와 신뢰를 높임으로써 교정시설 내 화 재 및 응급상황에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관자들은 보안과 내 수용동 및 작업장 등을 둘러보았고, 현대 화된 시설에 놀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격무직원 힐링데이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3월 15일 각 부서에서 선정된 격무직원을 위한 힐링데이 행사를 진행하였 다. 이번 행사는 전남 담양 가사문화권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통시장인 창평시장 을 방문하여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 하는 등 예전보다 더 다채로운 구성으로 마련 되었다. 정읍교도소는 앞으로도 직원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진 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정공제회



제8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교정공제회는 지난 3월 22일 제8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2018년도 회계결산 결과 26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대여금리를 현 3.35%에서 3.50%로, 급여금리는 현 3.40%에서 3.50%로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2019. 7. 20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군교도소



상주교도소 참관 행사 실시

국군교도소는 3월 14일 상주교도소를 참관했다. 국군교도소 소장 채왕식 중령과 업무별 담당자 10명은 최신 교정시설인 상주교도소를 참관하며 교정행정업무 발전 및 수용자처우기법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군교도소는 변화되는 최신교정행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인권중심의 선진교정문화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

2008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11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다. 현재 민원과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며 접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성실히 안내해주고 접견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비에도 노력하는 등 교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방문 민원인에게 다가가 세심한 배려와 안내로 감사인시를 받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서울구치소 교위 이종호

원칙적인 근무와 엄정한 계호로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

출정 수용자에 대한 계호 시 원칙적인 근무와 엄정한 동행 및 계호, 검신, 검색 등으로 공범 간 허가 없는 연락행 위 및 부정물품 수수 방지에 기여하였고, 법정기록 및 검사실 조사계호 근무에 임하면서 수용자와 외래인과의 접 촉을 차단하고 통모, 부정 물품 수수 방지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실지정 및 팀 사무실과의 원활한 소통으 로 사건 관련 공범자 및 반목관계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수용자들의 접촉 및 허가없는 연 락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수용자에게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부산구치소 교위 박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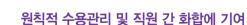


교위 최창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

보안과 기동순찰팀에 근무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을 통하여 엄격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용자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충주구치소 개청 시 지인에게 홍보 및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수용지를 위한 도서 100여 권을 확보해 수용자 독서활동을 적극 장려 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하였다.





총무과 기결보조 담당근무자로, 3·1절 가석방 대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여 근무에 임하였으 며, 원칙적인 수용관리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직원이다. 또한 항상 밝은 얼굴로 매사에 임하는 등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사 손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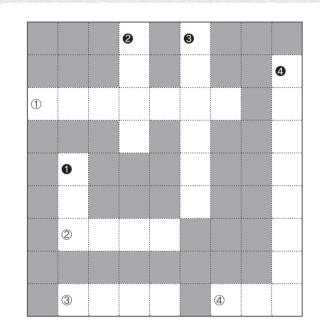
2019



살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①미국 영화계 거장으로 수많은 영화의 기획, 제작, 감독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 한다"는 명언을 남긴 사람은?
- ②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 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개념 이다. 최근 이것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많아 지면서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단어는?
- ③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의 거의 모든 업적은 이 정신 에서 나왔다.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발현된 세종 대와의 통치이념 중 하나인 이것은?
- ④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는 아나키스트 성격의 무장독 립운동단체로 1919년 9월 설립한 이 단체는?

- ❶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 어하는 마음으로 아인슈타인은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000이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000 에 들어갈 단어는?
- ② 아일랜드 더블린은 2010년에 이 단체가 선정한 문학 의 도시로 선정됐다.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 를 통해 국가 간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 합전문기구인 이 단체는?
- 3 1726년 간행된 풍자소설로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조너선 스위프트의 작품이다. 소인국과 거인국을 오가 며 펼쳐지는 주인공의 다양한 모험세계를 흥미있게 보 여주는 이 소설은?
-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 해 실시한 이 행사는?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 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신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공연소개

공연보고! **감성충전**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4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우리의 감성에도 따스함을 전해보자.



뮤지컬 '그날들'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들을 어레인지해 만든 주 크박스 뮤지컬. 김종욱 찾기, 형제는 용감했다 등 성공한 창작 뮤지컬을 여럿 제작했던 장유 정 연출가의 작품이다.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 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구성을 취한다.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기간** 2019년 5월 6일까지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까칠한 도시 할배와 방황하는 청춘의 예 측불해! 동거동락!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까칠, 도도, 괴팍한 도시 할배 앙리 할아버지와 상큼발랄 대학생의 유쾌한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기간** 2019년 5월 12일까지



2019 최현우 (THE BRAIN)

상식을 뒤집는 지상 최대의 매직콘서트, 관객 의 무의식에 주문을 걸다! 뇌 과학과 심리학 을 결합하여 인간에게 잠재된 공감각적 능력 을 깨우는 신비한 시간으로의 초대! 멘탈매직 의 Best of Best 마술이 120분간 펼쳐진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기간** 2019년 4월 27일~28일



뮤지컬 '영웅'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 된 후 매 시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뮤지 컬 〈영웅〉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완전 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독립군들의 이야기.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기간** 2019년 4월 26일~28일



연극 '그남자 그여자'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을 기 다리고 있나요?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알 맞은 감성 연극, 상랑에 관한 순수하고 감 성 어린 공감대를 자아내는 연극,

장소 이수아트홀 **기간** 2019년 5월 26일까지



2019 복고판타지연극 〈청춘고백〉

트랜드는 복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9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연극, 단순한 코미디연극이 아닌 예측불가 코미디 연극.

장소 대전 이신극장 **기간** 2019년 6월 2일까지



연극'한뼘사이'

강력계 검사 마혜리, 이혼 전문 변호사 야한 길, 기자 금나리, 사기꾼 리처드 홍이 오피 스텔 한 층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 린 로맨틱 코미디 연극.

장소 여우별이트홀 **기간** 2019년 5월 6일까지



연극 '그녀를 믿지마세요'

연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연애를 하고 싶게 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인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 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장소 아트플러스씨어터 2관 **기간** 2019년 4월 5일부터



연극 '내모든 걸'

청력을 잃은 지휘자 '건우'와 수화통역사 이자 무명가수인 '이유'가 만나 서로에 대 해 이해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장 애와 비장애를 넘어 사람 사이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야기하는 공연. 의 진수를 즐기자.

장소 충장아트홀 **기간** 2019년 5월 19일까지



메모리즈11 환희&린 콘서트

2019년 싱그러운 봄에 만나는 메모리즈 11 번째 이야기 밴드세션과의 콜라보로 더욱 생생한 라이브의 감동과 현장감을 전할 메 모리즈11에서 환희와 린이 선사할 발라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기간** 2019년 4월 28일



뮤지컬 '라이온킹 인터내셔널 투어'

1994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만났던 '라 이온킹'을 뮤지컬로 만나본다. 배우들의 손 끝 발끝으로 표현되는 동물들의 몸짓과 웅장 한 사운드, 영화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현 장감과 감동을 느껴보자.

장소 드림씨어터 **기간** 2019년 5월 19일까지



뮤지컬 '복순이할배 시즌12'

홀로 사는 괴짜 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와 그 의 집에 봉사활동을 간 사회복지학과 실습 생 태수가 펼치는 에피소드로 태수가 복순 이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의 참의미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장소 아트레볼루션 전용관 **기간** 2019년 5월 26일까지

※ 위 공연 중 관람을 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해 엽서나 메일을 보내주세요. 신청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본지 '영화 같은 하루'와 연계해 관람의 기회를 드립니다.

- 신청방법: 엽서(본지 내 엽서 이용) / E-MAL: correct2015@naver.com

함께 만들어 가는

〈교정〉지는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의 소리

평소 월간 〈교정〉 발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덕분에 교정 관련 새로운 소식, 본부 및 각 청, 각 기관의 모습을 지면으 로나마 잘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봉석 님(김천소년교도소 교사)



으로 6'즉 고니다 여행따라 잉글리쉬' 등처럼 생활에 유용하고, 워라벨 시대에 어울리는 여행 정보가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 알찬 정보라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론 님(대구교도소 고나)

교정행정을 행함에 있어 교정과 관련 최근에 결정 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담아 주시면 도 움이 될 듯합니다

- 쇠엉기 님(대구교도소 교지

수염생 때부터 월간 〈교정〉을 잘 보고 있습니다. 교 정소식뿐 아니라 생활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이헌진 남(진주교도소 교도)

지난 호 퀴즈 정답





이종우 님(대구교도소 교위) 이승용 님(부산구치소 교위) 전연식 님(의정부교도소 교위) 김지현 님(청주여자교도소 교사) 최재성 님(의정부교도소 교사)



영화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독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원간〈교정〉 주인공은 'LHO부 LH

2019년 월간(교정)의 **'교정 백일장', '영화같은 하루', '추억을 담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지는 콘텐츠들입니다. 또한 월간 〈교정〉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정본부의 대표 매거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월간(교정)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2019년 매월 · 콘텐츠: 영화같은 하루

· 대상: 월간(교정)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교정공무원

· 진행방법: 신청한 독자가 원하는 것을 일정을 잡아 실행시켜준다.

· 신청방법 : 월간〈교정〉 내 엽서이용

이메일_correct2015@naver.com/yjw1219@korea.kr

월간〈교정〉 내 QR코드 스캔



맛있는 떡볶이와 매콤달콤 **봄 여행주간**

2019 봄여행주간엔, 취향 따라 떠나보세요

지금 바로 여행주간 | 역 을 검색해보세요

국립용원관리공단, 국립산학박물관, 국립생태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자연휴양급관리소, 근로부지공단, 독립기념관, 정보화마을, 코레일관화기방, 태권도신흥재단, 한국운항공산, 한국는아촌공산, 한단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산림복자진흥원, 한국생태관광업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 【참여기업】대명호텔앤리조트, 롯데렌터카, 위메프, 카모아, 신라스테이

